

마두관음상

여러 형태가 존재하는 관음보살 중에서 유일하게 놀라울 정도로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두관음입니다. 말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. 말이 풀을 먹고 물을 다 마셔버리는 것처럼, 마두관음은 중생이 품고 있는 현세의 욕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조리 먹어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팔 8 개 중에서 5 개는 길운을 상징하는 도구 즉, 도끼, 검, 염주, 법의 지팡이, 법륜을 들고 있으며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구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. 일반적으로 마두관음상은 얼굴이 3 면이나, 이 불상은 뒤편에도 얼굴이 있어, 총 4 면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마두관음상은 목조 불상으로 높이는 503cm 입니다. 이러한 종류의 마두관음상은 비교적 보기 드물며 일본에 현존하는 마두관음상 중에서는 크기가 가장 큼니다. 제작 시기는 1130 년 전후로 추정됩니다. 불상 앞에는 교통 안전을 기원하는 부적이 놓여 있습니다. 마두관음은 가축의 수호와 동시에 안전한 여행과 순산 기원에 효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.